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마음을 갖추기 위해 옳은 일을 꾸준히 실천[集義]해야 한다.
- ②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物我一體]에 이르도록 수양해야 한다.
- ③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덕규범을 배우고 익혀 내면화해야 한다.
- ④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기(緣起)의 법을 자각해야 한다.
- 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법(禮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성(性)이란 기호(嗜好)이다. 하늘이 부여한 천도(天道)의 성이 영지의 기호이며,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구의 성은 형구의 기호이다.
○ 하늘은 사람에게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권능[自主之權]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적[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過]가 된다.

< 보 기 >
ㄱ. 인간의 욕구는 천도를 실현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ㄴ. 영지의 기호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부여된 본성이다.
ㄷ. 형구의 기호를 따르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쉽다.
ㄹ. 자주지권은 선행의 공적이 그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근거가 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부가 계획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예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을: 정부는 다양한 공공 정책을 펼쳐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민간의 부족한 유효 수요를 보충하여 실업과 공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의 결점을 보완하려면 정부의 기능 확장이 필요하다.

- ① 갑: 작은 정부로의 회귀는 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악영향을 준다.
- ② 갑: 정부는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계획 경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 정책으로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포괄적인 투자의 사회화로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현명한 자는 자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따라 인식하므로 정신이 거의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지한 자는 외부의 원인들 때문에 이리저리 동요하고, 결코 정신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자기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산다.

- ①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동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② 신은 자연 안의 모든 사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 ③ 자연에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한다.
- ④ 정신의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자기 보존의 욕망을 부정해야 한다.
- ⑤ 현명한 자는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하여 지복(至福)에 도달할 수 있다.

5.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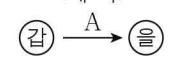
갑: 인간은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덕을 실천하며 현세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이는 불완전하다. 인간은 종교적 덕을 실천하고, 신의 본질을 직관하여 신과 하나가 될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을: 인간의 참된 행복은 구원을 통해 내세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교만하고 거짓된 덕성을 기초 삼아 행복을 조작하려고 한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신의 나라로 갈 수 있으며,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① 갑: 자연법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도 영원법에 위배될 수 있다.
- ② 갑: 인간은 신의 계시가 없으면 신의 존재를 증명해 낼 수 없다.
- ③ 을: 실체로서 존재하는 악을 제거해야 신의 나라로 갈 수 있다.
- ④ 을: 인간은 신의 은총을 받지 않아도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마음[心]을 물에 비유하면 성(性)은 물의 고요한 상태로 이(理)일 따름이며, 정(情)은 물의 흐름, 욕망은 물의 파도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하며, 욕망은 정이 발현한 것이다.</p> <p>을: 마음은 자연히 알 수 있다. 부모를 보면 효도를 알고, 형을 보면 공손함을 알며, 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면 측은해할 줄 안다. 이것이 곧 천리(天理)이자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이니,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right: 10px;">갑</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margin-right: 10px;"> <div style="margin-bottom: 5px;">→ A</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B</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left: 10px;">을</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범례> →: 비판의 방향 A, B: 비판의 내용</p> <p><예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A: 마음의 인욕(人欲)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마음을 벗어나 어짚[仁]과 의로움[義]을 구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B: 마음의 본체가 사덕(四德)이며 마음의 작용이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④ B: 마음의 천리를 각 사물에 실현하면 그 사물은 이치를 얻게 됨을 간과한다.
- ⑤ B: 마음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7.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인간의 본성이란 본래부터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중에야 비로소 스스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 만약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동시에 실존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 시대 전체를 위해서 유효하다. 우리의 책임은 인류 전체에 '양가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양가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개별자가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그 상황을 변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결심하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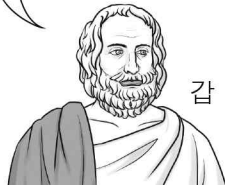
< 보 기 >

- ㄱ.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식할 때 불안이 생겨난다.
- ㄴ. 불안을 극복하려면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해야 한다.
- ㄷ. 인간은 미리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 ㄹ. 자신의 행동과 결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각자는 만물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을: 각자가 만물의 척도라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 ① 갑: 각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갑: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사물의 유용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인간은 이성적 숙고를 통해 절대적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
- ④ 을: 명성과 명예를 얻어야만 현실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 ⑤ 갑과 을: 개인의 경험을 도덕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변진다. 우리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줄이는 것보다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인가?
- ②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 ③ 모든 폭력은 반드시 특정한 의도성이 수반되어 가해되는가?
- ④ 문화는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무디게 할 수 있는가?
- ⑤ 구조적 폭력의 주요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의 억압과 착취인가?

1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仁)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패도 정치라 하며, 덕으로써 인을 펴는 것을 왕도 정치라 한다. 군주가 덕으로써 백성을 복종시킨다면 백성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게 된다.

을: 하늘의 뜻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기 바라지 않으며, 큰 집안이 작은 집안을 어지럽히기 바라지 않는다. 만약 천하가 서로 사랑한다면[兼相愛],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집안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다.

< 보 기 >

- ㄱ. 갑: 군주가 백성을 잔혹하게 다스리면 그 군주는 교체될 수 있다.
- ㄴ. 갑: 백성의 항산(恒産) 보장이 통치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 ㄷ. 을: 군주는 천하의 이익 도모를 위해 비공(非攻)을 실천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친소(親疏)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왕도를 구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사단과 칠정은 본래 하나의 정(情)이지만, 오로지 이(理)만을 말할 때와 기(氣)를 겸(兼)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에 구분된다.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지만,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다.</p> <p>을: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여 본다면, 사단과 이의 관계는 칠정과 기의 관계와 같다. 그 발하는 것이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이 각각 가리키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주(主)된 것에 따라 이와 기로 나눌 수 있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 ① A: 이와 기가 서로 분리[離]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② A: 이는 무형(無形)하고 기는 유형(有形)한 것인가?
- ③ B: 수오지심(羞惡之心)은 미음[惡]에 속하는 감정인가?
- ④ B: 모든 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기를 따른[隨] 것인가?
- ⑤ C: 이와 기가 서로를 주재할 때 칠정은 선하게 드러나는가?

1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p>갑: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p> <p>을: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은 심의에 있다. 시민들은 공적 심의를 통해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민들은 공적 이성애 따라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적 기회를 가져야 한다.</p>
--

<p>< 보기 ></p> <p>ㄱ. 갑: 시민들의 역할은 정치 지도자 선출에 한정되어야 한다.</p> <p>ㄴ. 을: 민주 정치에서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다수결만으로는 확보되지 않는다.</p> <p>ㄷ. 을: 시민들은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p> <p>ㄹ. 갑과 을: 정치가는 모든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공동선을 실현해야 한다.</p>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갑: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의지를 낳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세상 안과 밖에서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p> <p>을: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결코 감정과 상반될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이고,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이외의 다른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p>

<p>< 보기 ></p> <p>ㄱ. 갑: 도덕적 행위가 반드시 선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p> <p>ㄴ. 갑: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도덕 법칙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p> <p>ㄷ. 을: 덕과 악덕을 구별하는 기초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있다.</p> <p>ㄹ. 갑과 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선악 구별은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p>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p>갑: 자신의 성품이 부처와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달았을지라도[頓悟], 오랜 세월 동안 익혀 온 습기(習氣)를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해 점진적으로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p> <p>을: 자신의 성품이 곧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다. 깨달은 자는 자성(自性)이 그릇되거나 어리석을 수 없음을 매 순간 반야(般若)의 지혜로 비추어 볼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p>

- ① 갑: 나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다.
- ② 갑: 깨달음 이후에도 정혜(定慧)를 지속적으로 함께 닦아야 한다.
- ③ 을: 만물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는 마음의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
- ④ 을: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깨달음[漸悟]에 이르러야 한다.

1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절제란 일종의 화성(和聲)을 닮았다. 용기나 지혜는 국가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도 용기 있는 국가나 지혜로운 국가가 되게 하지만, 절제는 그렇지 못하다. 절제는 국가 전체에 걸쳐 있어야 한다. 마치 화음처럼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사람과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사람,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모든 음정이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p>
--

<p>< 보기 ></p> <p>ㄱ. 지혜의 덕은 정의로운 국가의 통치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p> <p>ㄴ. 용기의 덕을 갖춘 수호자는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p> <p>ㄷ. 절제의 덕은 국가의 세 계층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이다.</p> <p>ㄹ. 정의의 덕은 각 계층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에 충실할 때 실현될 수 있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신체 영역에서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참된 쾌락이다. 우리의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을: 인간의 정신을 방해하는 것은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동요와 슬픔 때문에 방해받는다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돌려야 한다.

- ① 갑: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는 최대한 충족되어야 한다.
- ② 갑: 참된 쾌락의 추구를 위해 이성적으로 숙고할 필요는 없다.
- ③ 을: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때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
- ④ 을: 외부 사건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바꿀 수 없다.
- ⑤ 갑과 을: 공적인 역할을 회피하고 은둔자적인 삶을 지향해야 한다.

17. 근대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서양 도덕과 싸우자는 것은 내 나라 쪽 사람의 말이고, 서양 도덕과 강화[和]하자는 것은 적국 쪽 사람의 말이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 안에 전해 내려온 문화 전통을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禽獸)의 지경에 빠질 것이다.
 을: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근거도 없다. 다만 자신을 위한 계략이 이루어지기만을 빌 따름이다. 또한 서학(西學)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식은 있으나 신앙이 나타나는 실체가 없다.

- ① 갑: 서양과 화친을 도모하여 정신과 물질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 ② 갑: 성리학적 봉건 질서를 혁파하여 서구식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③ 을: 민족의 주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유교와 천주교를 통합해야 한다.
- ④ 을: 한울님을 모시고 새 세상을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건설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외세 위협에 맞서 나라를 보위(保衛)하는 계책을 세워야 한다.

18.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의 이행은 인간의 행위에서 본능을 정의(正義)로 바꾸어 놓고, 그때까지 빠졌던 도덕성을 그 행동에 부여한다. 인간은 사회 계약으로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시민적 자유와 그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된다.
 을: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보유하는 한 모든 인간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과 이성에서 생겨난다.

- ① 갑: 일반 의지가 항상 공익을 지향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② 갑: 사유재산은 인간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③ 을: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정념이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을: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을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사회 계약은 국가에게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

19.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성인(聖人)은 어질지 않아서[不仁], 백성을 모두 짊어지려 함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풀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텅 비어 있지만 작용은 그치지 않고, 움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친다.</p> <p>을: 성인이 만들어 낸 예의(禮義)를 배우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란 본디부터 성인이 되는 길을 배우려는 것이지, 법도 없는 백성이 되기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다.</p>
(나)	

< 보기 >

ㄱ. A: 성인은 하늘을 인의(仁義)의 근원으로 보지 않는다.
 ㄴ. B: 성인이 되려면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ㄷ. C: 성인은 예(禮)를 통해 천지 만물을 올바르게 분별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이 사회에서는 하루 6시간 노동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생산한다. 생산물은 공동 창고에 보관되고 각 가정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물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굳이 필요 이상의 물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을: 이 사회에서는 노동 분업에 예속된 노예 상태가 사라진다. 이때 노동은 생활 수단을 넘어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 여기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부 역시 풍요로워진다.

- ① 갑: 법과 제도가 없지만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② 갑: 각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필요한 물품이 분배된다.
- ③ 을: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적 분업이 확대된다.
- ④ 을: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이 아닌 생계 수단으로 간주된다.
- ⑤ 갑과 을: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